

축 사

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2천만 불자와 불교계 전체 종단의 원력과 정성이 모아져서 설립된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입니다. 지난 20년간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은 얼마 전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정신처럼 맑고 향기로운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불교방송은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도 크게 힘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종합미디어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원장 선거 후보 당시 불교

종합미디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불교 종합미디어 구축은 불교방송 뿐만 아니라 불교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불교방송은 또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IPTV에 2년 전에 진출해 방송 산업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자들과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그 존재를 각인시켜 나가고 있는 시사주간지 <판판뉴스>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어줌으로써

불교방송의 대외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방송은 TV와 라디오, 신문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매체로서 성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조계종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불교방송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세상에 대자대비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단도 불교방송과 함께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